“시크릿”과 ‘진짜 시크릿’

(시편 52:1~9)

1.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2.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 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3.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4.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5.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여 너를 붙잡아 네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 있는 땅에서 네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시크릿”과 ‘진짜 시크릿’>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시크릿”과 ‘진짜 시크릿’

론다 번의 “시크릿(Secret)”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에 출간되었는데 지난 10년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시크릿 신드롬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인구에 회자되었던 책입니다.

이 책은 우주를 지배하는 하나의 법칙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 법칙이 우리의 생각과 느낌에도 그대로 작용한다고 봅니다. 이 법칙을 우리가 일상 속에서 잘 이용할 수만 있다면 그토록 원하던 부 건강 미모 성공 등의 침 흘리며 가지고 싶어 하는 가치들을 손에 쥘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론다 번은 전 세계의 부의 96%가 고작 1%의 인구가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부를 가지게 된 이유는 바로 이 책에서 말하는 비밀을 일상화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비밀이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뉴턴은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였습니다. 무게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은 서로 끌어당깁니다. 거리가 가까울수록 인력은 강해집니다. 이 끌어당김의 법칙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도 그대로 작용합니다. 전 세계 부의 96%를 소유하고 있는 1%의 사람들을 잘 관찰해보면 그들은 마음에서 강력하게 돈에 대한 생각을 부여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마음에서 그 부여잡은 돈이 실제로 현실의 돈을 끌어들여서 부자가 되었다는 것인데 놀랍습니다.

이 비밀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몇까지 보족적인 원칙들이 필요합니다. ‘간절히 원하라, 이미 원

하는 것을 가진 것처럼 행동하라, 꿈을 시각화하라'라고 하는 보족적인 원칙들과 함께 끌어당김의 원칙을 강력하게 수행할 수 있다면 이 세상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책의 취지입니다. 론다 번은 2017년 3월에 또 다른 책을 써냈습니다. 새로 쓴 책은 실제로 이 시크릿을 일상화함으로서 많은 문제를 개선한 사례들을 편지로 받았고, 그 중에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내용들을 추린 것입니다. 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마음에서 단단히 붙잡는 것은 곧 이름을 붙잡는 것이고 마음에 그린 모습을 붙잡는 것입니다. 살을 빼고 싶다면 살이 빠진 내 모습을 마음속으로 그립니다. 그러면 그것이 현실의 나를 끌어당겨서 실현시킨다는 이론인 것이죠.

우리가 이제까지 성전을 중심으로 해온 이야기를 다시 살펴봅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들어가 계시도록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그 마음에 '나'라는 의식이 있는 것이 인격입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으로 온전히 채워질 수 있는 하나님 사이즈의 공백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백이 채워지지 않을 때에 흡입력이 작용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자면 끌어당김의 법칙이 일부 맞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끌어당김의 힘이 본래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들어진 것임을 시크릿의 저자인 론다 번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끌어당기도록 만들어진 마음의 흡입력이 이 세상을 향하는 것이 타락이고 죄악임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 끌어당김의 법칙은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구조이기에 비밀일 이유도 없고, 이미 성경은 그 마음의 모습을 성소의 구조로 외형화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지성소에 법궤가 들어있는 것처럼 마음의 지성소에 무엇인가의 이름이나 이미지를 붙잡습니다. 꿈을 시각화하라는 시크릿의 말처럼 한 장면을 붙잡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지성소에서 이것들을 붙잡는 이유는 만족과 기쁨이 주어지리라고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렇게 마음의 지성소에서 무엇인가를 붙잡으면 그 실제 존재를 끌어당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성소의 휘장 바깥에 있었던 향불을 피우는 분향단이 상징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할 때에는 기도이고 이 세상을 향할 때에는 추구가 됩니다.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으로만 만족하게 됨을 뜻하는 떡상이 있습니다. 또한 지성소에 담은 것을 기준으로 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살아감을 뜻하는 등대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이미 마음의 구조와 마음의 움직임 자체를 성소의 구조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시크릿에서 제시한 끌어당김의 법칙은 상당히 부분적인 이해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여기서 론다 번의 비밀은 이 세상에서 갖고 싶은 것이 있고 그것이 진정으로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다고 믿어서, 마음의 지성소에 그 이름을 붙잡으면 실제로 끌어당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객관적 관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얘기는 마음의 지성소가 붙잡고 있는 이름이나 이미지나 장면을 지속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붙잡으면, 끌어당

기는 힘이 계속 작용하여 언젠가는 이루어지지 않겠느냐고 합니다. 이 말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크릿의 한계는 이 비어있는 마음의 자리가 본래 하나님의 자리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모셔서 마음이 채워지기 위해서는 이 세상은 끌어당김의 법칙이 아닌 밀쳐냄의 법칙으로 대해야만 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처럼 론다 번이 소개한 세상을 향하여 세상의 가치를 끌어당기는 법칙을 시크릿이라고 했다면, 성경은 세상에 대한 시크릿은 밀쳐냄의 법칙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세상을 밀쳐내야만 합니다. 오히려 세상을 밀쳐낼 때에 이 세상에서 진정한 복지를 살 수 있다는 것을 시크릿은 간과하고 있고 그러한 비밀에 대해서 무지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자의 시선의 높이에 맞춰 세상과의 관계에서 이야기하더라도 진짜 성공의 비밀은 세상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밀쳐내는 것입니다. 론다 번의 시크릿에서 말하는 끌어당김의 법칙으로는 전 세계의 96%의 부를 가진 1%에 속하더라도 만족과 기쁨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마음의 크기는 나 혼자 전 세계의 재산을 다 가지더라도 채워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 사이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만족과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크릿 책은 너무나 많은 진실을 외면한 가짜 시크릿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다윗의 시로서 BC.1020년 경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자 초기에 일어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제일 먼저 피신했던 곳은 놉이었습니다. 이 놉은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북쪽에 있었던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는데,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었던 사울 왕국 시절에는 성막이 놉에 있었던 같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다급히 피신하는 가운데 먹을 것과 무기조차 갖추지 못하였는데, 그곳에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진설병을 얻어먹게 됩니다. 그리고 성막에 보관하고 있던 자신이 죽였던 골리앗의 칼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도움을 주는 장면을 목격한 자가 있었습니다. 에돔 사람이었지만 개종하여 이스라엘 땅에서 살고 있던 도엑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사울 왕이 기브온에서 신하들을 모아놓고 원망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사울이 보기에는 다윗이 자신에게 반역하고 있는데 아들인 요나단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신하들이 다윗 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분기충천한 상태로 불평을 하는 사울 앞에서 도엑이 기회를 잡았습니다. 단순히 다윗이 제사장이 머물던 놉 땅에 있다가 피신하였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사울의 분노에 기름을 붓듯이 과장하여 이야기했습니다.
‘놉 땅에서 아히멜렉 대제사장을 필두로 한 85명의 제사장 전체가 사울 왕에게 반역하여 다윗에게 먹을 것과 무기를 제공하였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들은 사울이 크게 분노합니다. 본래 에돔 사람이었던 도엑은 자신의 사회기반을 다지기 위한 공명심 때문에 이러한

일을 벌였지만, 사실 아히멜렉 대제사장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는 것도 몰랐습니다. 단지 왕의 사위가 먹을 것과 무기조차 준비하지 못할 정도로 급박한 작전을 수행하는 줄로만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을 채워주는 것이 신하 된 도리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도엑은 이런 점을 배제한 채 제사장들이 다윗과 한 편이 된 것처럼 보고하여 사울 왕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본래 선민인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종인 제사장들을 죽일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울이 제사장들을 죽일 것을 명한 뒤에도 그 부하들이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도엑이 사울의 명령을 따라 85명의 제사장과 그들의 부녀자들까지도 학살하는 참극을 벌이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건을 전해들은 다윗이 부른 노래입니다.
1절을 보면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포악한 자는 도엑을 말하는 것이고, 악한 계획은 사울의 분노를 이용해 자신의 공명심을 채우려고 한 일입니다. 다윗이 놉 땅에 머물러 있다가 갔다고 있는 그대로 사울에게 보고했으면 충분했을 것을, 아히멜렉 대제사장이 사울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다윗을 도운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분노를 이용하기 위해서 모든 제사장들이 사울을 배신하고 다윗 편을 들었다는 것으로 이야기하여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2절에서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 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라고 말한 것도 이것에 대한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1절을 보면 앞부분과 뒷부분의 단절이 일어남을 알 수 있습니다.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라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7절은 도엑에 대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도엑은 엄청난 포상금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여 사는 자에 대한 멸망을 언급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 이런 도엑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라는 말을 하였던 것일까요? 이 때문에 학자들 간의 이견이 분분한데 그렇게 어려운 내용도 아닙니다. 포악한 자 도엑은 악한 계획을 통해서 살아갑니다. 그에 반해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통해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둘 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활용하여 살고 있습니다.
본래 이방인이었던 도엑은 그의 마음의 지성소에 이스라엘 나라에서 자신의 존재의 기반을 위해서는 왕의 눈에 들어야 되고 돈을 가져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론다 번의 시크릿에서 말한 것처럼 마음의 지성소에 돈이라는 이름을 붙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돈을 벌 수 있고 존

재의 기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주어졌다기보다는 스스로 그러한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마음에서 굳건하게 돈을 붙잡고 있으면 어떤 인간관계도 돈을 벌기 위한 기회로 활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의 부모가 돈이 많다면 그것조차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도엑은 마음에서 믿은 대로 사울의 다윗을 향한 분노를 이용해서 상금을 얻으려하였고, 제사장들 85명과 그 가족을 학살하는 자리에까지 나가게 되었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이 작용한 것입니다. 그 결과 사울 왕에게 인정받아 기반이 튼튼해졌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출신 신하들이 사울 왕의 명령을 수행하기를 주저할 때에 분연히 나설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끌어당김의 법칙을 수행해 나갔던 것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대로 살아간다는 전 세계의 96%의 부를 소유한 1%의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러한 부를 거머쥐게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정의로워야 할 검사가 마음의 지성소에 돈을 붙잡으면 그 자리에서 돈을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대학총장이 마음의 지성소에 돈을 붙잡으면 실질적으로 돈을 얻기 위해 총장 자리를 이용해 돈을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키워내는 일은 뒷전으로 여기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연구 사업을 이용해서 돈을 어떻게 벌지에 모든 관심을 쏟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라고 말한 다윗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9절을 보면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시므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 이름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면 붙잡은 대로 하나님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마음의 지성소에 붙잡은 이름에 대해서 끌어당김의 법칙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것은 돈이나 건강 혹은 외모나 세상의 성공을 끌어당기는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인격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함부로 마음에 모시면 나의 생각을 주관하시게 됩니다. 내가 돈 벌고 싶다고 생각할 때에 그것이 아니라고 잘라버리십니다. 나의 주체성이 능동적으로 작용할 때에 하나님의 주체성이 사사건건 시비를 거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주체성을 능동적으로 발휘하고 싶고 세상에 대한 끌어당김의 법칙이 작용하고자 한다면 절대로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고 하나님을 우상시하는 행동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모셔 들여서 내 마음을 채우고 만족과 기쁨을 얻으려 한다면 진정한 시크릿 법칙이 작용해야만 합니다. 바로 이 세상을 밀쳐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소원을 발동하는 내 마음을 죽여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것은 불가능합

니다. 하나님을 끌어당기려 할지라도 내 안에서 일어나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갈등을 나 스스로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와 내가 원하는 바가 다르기에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날 텐데 그것을 견디지 못해 정신분열이 일어날 정도가 될 것입니다. 사실 내가 세상을 담고 싶어 하고 세상을 끌어당기고 싶어 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들어오실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을 향한 관계에서만 이야기하자면 시크릿은 끌어당김의 법칙이 아니고 밀쳐냄의 법칙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 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의 지성소에 붙잡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가 내 마음에 유일한 만족과 기쁨이 되신다는 믿음 때문에 그 이름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기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대해 끊임없는 밀쳐냄이 필요합니다. 그 밀쳐냄이 바로 십자가 생활화입니다. 십자가 생활화가 세상을 향한 우리의 진짜 시크릿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라고 말한 다윗의 말이 이루어집니다.

도엑이 악한 계획을 가지게 된 이유는 마음속에 돈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어야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믿었기에 돈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돈을 끌어당기는 과정으로서 악한 계획이 생겨났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기 위해서 세상을 밀쳐내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작용합니다.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자신을 채워주십니다. 또한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 몸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 삶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삼중의 채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시크릿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에 대해 죽음으로서 세상을 밀쳐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을 끌어당길 때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부터 나오는 계획과 뜻에 의해서 살아지게 될 것입니다. 도엑과 다윗의 삶의 방식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진짜 시크릿을 통해 살았고 도엑은 론다 번의 시크릿을 통해 살았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가 진짜 시크릿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에 대해 죽음으로서 밀쳐내는 것이 진짜 시크릿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끌어당김의 법칙이 작용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